

사회

전남지역 고교 10곳 통합·이설

나주·보성·해남·완도·고흥·무안·별교제일고 등 거점고 7곳 선정

흡수대상 학생 전학·폐교 지역주민 무상임대

전남도교육청의 최대 현안인 거점고 육성사업 계획이 확정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차(2013~2014년) 거점고 육성방안으로 6개 지역 7개 학교를 거점고로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점고에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학교는 흡수하는 학교는 나주고, 보성고, 해남고, 완도고 등 4곳이다. 이 학교로 통합되는 학교는 공산고, 조성고, 북평고, 소안고 등 4곳이다.

2014년에는 고흥 금산중고와 나로고가 고흥고로, 보성정보통신고가 별교제일고로, 무안 현경고와 해제고가

무안고로 통합된다. 또 교육청은 지역별 공청회와 설명회,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중심으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거점고 교육환경 개선비로 2586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예산은 건물 신·증축, 기숙사 건립,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교과교실제 구축 등에 쓰인다. 거점고 육성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800억원도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집행된다.

△흡수대상 고교생 거점고로 전학 △폐지된 고교 재학생이나 해당 지역 중학교 졸업생에게는 통학 편의를 위한 교통비 지원, 기숙사 제공,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 사실상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폐지 대상학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지않고, 재학생은 올해부터 희망에 따라 거점고로 전학하게 된다.

■도교육청 지정 거점고교 현황

거점고	흡수대상고	폐교 시기(예정)
나주고	공산고	2013
고흥고	금산중고	2014
	나로고	2014
보성고	조성고	2013
별교제일고	보성정보통신고	2014
해남고	북평상고	2013
무안고	현경고	2014
	해제고	2014
완도고	소안고	2013

*통합고는 2014년 폐교, 혁신도시로 이설

센터브와 실내의 체력단련장, 교직원 사택 제공 등 후생복지도 과격적이다. 도교육청은 폐지된 학교는 인근 학교 실습장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주민들에게 무상임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거점고 육성에 나선 것은 학생이 매년 1만명 안팎 줄어드는 현실에서 10년 후에는 학생이 없는 학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학교들은 입학생 20명 안팎인 '한계학교'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선생님 사랑해요” 광주 경양초등학교 어린이 적십자단원들이 10일 교내에서 선생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구두를 닦는 등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원침 (8564) 김종두



승진 청탁 명목 1억 받은 순천신문 편집국장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행간 주간 순천신문 편집국장 서모(41)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에게 돈을 건넨 순천시청 공무원 3명과 인사기밀을 누설한 공무원 1명을 각각 제3자 뇌물교부, 공무원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경비행기 아산 추락” 오인 신고

○광주의 한 야산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119대원이 출동하고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오인신고로 판명.

○1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경 운포(55)씨가 광주시 남구 대지동 등용산 뒷자락에 경비행기 1대가 추락했다고 경찰에 신고.

○경찰과 소방서는 100여명을 투입해 3시간 가량 산 전체를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에 모두 철수했으며 운씨를 불러 오인·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중.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어업 허가증 위조 또 5000만원 행거

목포해경, 60대 추가 입건

목포해경은 10일 어업허가증을 위조·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61·부산)씨를 공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중순께 권모(53)씨에게 위조된 근해 어업허가증을 판매하고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조선 선취업자 등과 공모해 전남과 경남지역 어민 10여명에게 위조한 어업허가증을 판매해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통상 1억~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저렴한 가격에 사주겠다고 어민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 가로챈 뒤 두둑·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업허가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어업인을 상대로 비슷한 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조계종 승려 8명 호텔서 역대 포커

장성서... 총무원 간부 일괄 사표

조계종 소속 승려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역대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파문이 일자 10일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간부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했으며, 총무원은 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과 사대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조계종 소속 승려 8명이 지난달 23일 밤 8시에 해 연벌에 처해달라”며 “종교가 사회를 계도해야 하거는 사회의 지탄 대상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112 허위신고 40대 구류 2일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전화를 한 40대가 구류처분(2일)을 받았다.

10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정모(49)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35분께

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도박에 연루된 스님들은 지난달 24일 고졸총림 방장 수산 스님 49명에 참석한 승려들을 위해 백양사에서 제공한 이 호텔 10여 개의 방 중 한 곳에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장을 제출한 조계종 총무원 소속 성호 스님은 “선량한 중승과 사회 질서를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종교가 사회를 계도해야 하거는 사회의 지탄 대상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성호 스님은 도박 현장이 찍힌 물

라카메라를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도박 장면이 생생히 담긴 이 영상은 내부에서 누군가 찍어 성호 스님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박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 집행부 간부들이 10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간부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중단 부·실장 간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사표를 제출했다”며 “이런 시일 안에 차기 집행부가 정해져 사태를 수습하고 빠른 시일 내 수색을 통해 거둬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20여 명을 동원해 5시간 동안 영광 인근 지역 컨테이너와 공·폐가 등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으나 정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 오전 정씨와의 통화가 이뤄졌으나 정씨는 경찰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광주지검 범죄자 DNA 확보 최대

대상자 95.2% 채취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주요 범죄자에 대한 DNA 채취가 본격화된 이후 광주지검이 채취 대상 범죄자들의 DNA를 가장 많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수사관들은 출소한 범죄자들을 쫓아다니며 담배꽂초나 머리카락 등에서 DNA를 채취했으며, 이를 통해 영구 미제로 남을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DNA 채취 대상자 1487명 중 1415명(95.2%)을 채취해 규모가 비슷한 6개 지검 중 1위를 기록했다. 대구지검이 94.6%로 그 다음이었으며, 인천지검 83.

5%, 부산지검 78.8%, 수원지검 75.7%, 서울중앙지검 7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7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등 11개 주요 범죄 피의자의 DNA를 채취해 영구 보존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이 DNA를 활용해 지난 2004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2세 여자어린이와 23살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거나 강도·강간한 정모(52)씨를 불잡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의 DNA를 채취해 대조작업을 벌이던 중 정씨가 당시 범행 현장에 남긴 정맥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물없이도 할수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할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특허특제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며 일방면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5월 가정의 달! 생산가격으로 공급합니다. 4/28~5/28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을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게 적당하다. 면지, 면티, 면양말 착용 후 휘림통중 침몰을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 물을 한컵복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 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 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거림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발효 위기 식품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속병,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문의: 070-7804-5358

참옷 골드

매산 울담방... mke 진성경계부... miraRhus... ※이 제품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충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육천참옷 AIS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니다.



▶가죽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안도 명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옷섬마를 명산 울담방 진액, 그 원료가 다릅니다.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망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이대째 온나무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냅니다. ▶옷에도 공활이 있습니다. ▶옷에 대한 숭한 소문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 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5월 가정의 달! 1세트 9병 + 추가증정 3병 4/28~5/28일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